

관해도 안되는 건 믿음이 부족한 탓

19면에서 계속

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의지해 놓고 사느냐? 부모가 낳았으니가 자식이 부모를 믿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부모를 믿고 사는 것은 자랄 때까지만이지 더는 부모를 믿고 사는 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살아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와 같이 이 우주의 근본 에너지, 그 근본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생명력과 모든 살아나가는 길을 진화시켜주고 이렇게 창조해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 생활도 못하고 우리가 움직여갈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 의식을 구속구석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건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모습은 형성시킬 수 있을지언정, 또 더러 더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방 언저리는 알게 할 수 있다 할지언정 그 사방 구속구석이 그 가운데, 그냥 하나만 가져도 전체를 알게끔 되는 근본은 넣어줄 수가 없죠. 근본은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러 꾸며서 한다면 이게 잘못되어 돌아가는 이치가 많죠.

왜냐하면 그것은 악마 같은 일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재 안되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강도 짓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두려움도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알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아무리 전체 세계에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근본하고는 거리가 아예 먼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氣가 주위에 전이돼 괴로워

저는 몇 년간 기 공부를 하다가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기 공부를 놓아 버린지 거의 이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아직도 항상 기가 서려 있고, 그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제 몸 상태나 마음의 변화가 즉각 전이됩니다. 화가 잔뜩 나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으며, 제가 깜짝 놀라면 주위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식입니다. 또 상대방 마음의 일부가 제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 혼자 착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주인공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책적으로 여기고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곤하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일어날 기운도 없을 때에, 그럴 때 마음으로 의욕이 나지 않고 왜 이렇게 기가 툭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별책 일어나다면 그냥 의욕이 생기고 그냥 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따라지라고 내가 그랬죠?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기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기운이라고 해도 되죠.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가고 핏줄이 잘 돌아 가면 그대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사자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차가 운행을 하려면 바퀴를 켜 중심과 엔진이 없으면 그건 아예 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차가 굴러가는 것도. 그러니까 기를 떨어지지 않게 기를 넣으면 되고 말입니다. 그게 기를과 같은 건데 내 몸중에 차가 기를 없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는 떼서 오는 것도 아니고 떼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단, 자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내가 너를 믿는다면 믿는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뿌리니까, 그냥 뿌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올려보내죠.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도 정맥 동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문제를 일일이 생각을 안해도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운용하는 근본 뿌리만을 생각하며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산다면 기의 문제는 뭐든, 그 바퀴 속에서 다 돌아가고 필요에 따라 생선이 돼 나오고 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과 건강문제에 대하여

스님, 새해에도 저희를 보살피심에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스님께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나름대로 공부 한다고 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니 한 해 한 해가 몸이 달라지고, 어떤 때는 갑자기 뒷머리가 빠르거나 하면 걱정이 될까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병의 문제는 중생들에게는 참으로 깊고도 큰 일인 지라 몸에 대한 집착은 유달리 떨치기가 힘든 듯합니다. 스님께서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며, 안 좋은 데가 있거나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림 · 최주현

악마같은 일도 할 수 있는 복제인간 근본 벗어났기에 성공하기 힘들어

내 건강이래야 그냥그냥, 어디가 좀 신중찮으면 아프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대로 관찮고 그렇죠. 그저 그러저러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늙을 때까지도 병이 나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 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응신이라는 보살이 즉자인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놓고 어떡할 거예요?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놔두니까 돌이 안인데, 자기가 몸을 움직여주고 가려면 몸으로도 다녀야 되고, 몸 아닌 자기도 다녀야 되고, 갖은 각색으로 다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할 때에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죠.

나는 사람들처럼도 그러거든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고 찾아오면, 당신이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해결을 보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프면, 즉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렇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면 바로 약사보살이 돼 준다고 즉 말하죠. 또, 좋은 데로 못 가

면 저 사람 좀 좋은 데로 가게 하는 것도 너뿐이잖아. 이렇게 하면 또 지장보살이 돼 주고 이러니까. 어느 것이든, 어느 이름이든 다 될 수 있고, 이름 아닌 이름도 될 수 있고. 뭐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으니까, 그 이름은 보살이지만 부처님의 도리를 보살들이 다 하잖습니까? 용도대로 말입니다.

예전에 산으로 다니며 공부할 때 말입니다. 가야지 하고 딱 나서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은 어디까지 걸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걸어야 하는 가도 없지. 그러면서 계속 길을 걷는데, 어떤 길인지를 몰라서 발이 딱 묶였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까 하고 내면에 물으니 아주 천아만아한 남퍼러지, 천아만아한 산 두메, 길도 아닌 그냥 역새풀이 민장한 그런 곳을 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이구, 죽으나 사나 거기가 길이라니 가야지. 그러고 반쯤 가다 보니 역새풀에 모두 그어지고 그러니까 찢어져서 피가 나고, 날은 다 저물고 캄캄해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

(無)의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랬죠. 그랬더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구선 아, 길은 천지가 다 길이지만 그 천지가 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실현할 때, 구태여 날더러 묻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좋고 평탄한 대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역새풀이 뻗는 소로, 길도 없는 길인 때도 있겠지. 그게 모두가, 깨달으면 한결같이 깨닫지 못하면 천리 만리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죽일테면 죽이고 살릴테면 살려라 그거죠. 그래도 나중에 이 스승이 가르쳐준 그 길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것을 가지고 그랬다구 허허, 웃음도 짓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동바둥거리고 악착스럽게 매달려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쪽 저쪽의 맛을 다 알기 위해서 어떤 것도 길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테고, 그러면서도 이 몸뚱이 시자가 건강해야 부처님 심부름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 또 그것도 관하면서, 정말 어려운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부처이하 그 길 아닌 길을 다 열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스님, 저는 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큰 벌을 받았지요? 제가 아이를 지워야 했던 것을 지금은 후회합니다. 스님! 제가 속죄하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요. 부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여러 가지요.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됐길래 낙태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의 죄가 있겠죠. 어쩔 수가 없어서, 남편의 배신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자가 배신을 했기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 돈벌이를 해 가지고 어린이애를 가지지 해서 낙태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여자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남자가 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낙태하는 수도 많구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우리 선원에도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태시키는 숫자를 생각해서 그만큼 정성을 들이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의 그 영에다가 영을 만 개를 넣으면 몇 개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으면 됐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전에는 병원을 운영하는데, 잘못해서 크게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부터 그런 일들이 다 없어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70살이고 80살이고 딱 주어져서 이제 임태가 됩니다.

그러는데 그냥 중간에서 막 취위버리니까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70살까지 살 나이라면 70살까지 허공에서 돌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까지?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조금도 에누리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렇게 가로막히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워서 지극하게 근본과 돌 아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바로 그냥 자기 때 버리는 거죠. 그렇게 때 버려도 두드러지지 않죠. 빗물이 바다로 수많은 방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이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의 물에다가 이렇게 부은들 그냥 한 그릇이죠. 그와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또 이 주인공에 의해서 줄을 놔서 내 보낸단 말입니다. 좀더 좋은 데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악행스럽게,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가정에 다시금 태어나지 말라 하고 지극하게 영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요.

나는 어떡하든지 여러분이 편리하고 마음을 훔칠 틈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자꾸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뭐 안된다. 뭐 죄가 있어서. 너는 무슨 뭐 일이 있어서 못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 불바퀴에다가 그냥 갖다가 넣으면 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력이라는 것은 자식이 큰 덩어리가 있으면 조그만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큰 데 갖다 붙으면 그냥 하나로 돼 버리고 말죠.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그 생각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급박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완화된 수도 있고 다복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극치적으로 그냥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자유스런데도 자꾸 수습하게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디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나는 이제 큰 벌을 받는다고 마음을 옮겨야 하고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내 안의 근본에 돌 아나게 하나로 결부를 시켜버리고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모든 것을 돌 아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도 없는데 내 행동만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조각 진실한 마음으로 통신할 수 있다면 그 생명도 당신과 돌 아나게 차원이 높아져서 더 좋은 곳에 임할 테니까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46-4422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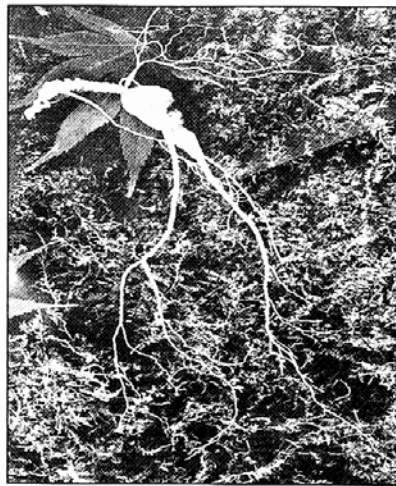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연상대로 제배한 것이며 자연산상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경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란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려진 것보다 효과가 높고 있습니다. **산삼장뇌의 효능**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경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란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려진 것보다 효과가 높고 있습니다. **산삼장뇌의 효능**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경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란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려진 것보다 효과가 높고 있습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저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으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